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사피엔스」 읽기 with 박성재교수님

1주차	일시	10 월 13 일 16 : 30 장소명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조민채(2311250)	O
		김유빈(2411121)	O
		이예원(2411096)	O
		박석주(2531105)	O
	진도	도서명: 사피엔스	진도페이지: 1p. ~ 118 p.
	토론 내용	<div data-bbox="525 696 1455 1223" data-label="Image"> </div> <p>[좌측부터 김유빈, 이예원, 박석주, 조민채, 박성재 교수님]</p> <p>토론주제 1. 뒷담화이론에서 종교 등으로 확장되는 '공통의 신화'가 현대에는 어떤 개념이 되었는가? 조민채: 고정관념이나 MBTI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다. 김유빈: 법도 비슷한 개념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석주: 공동체에서 만들어낸 개념들은 모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예원: 출신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지역인들끼리의 친근감이 해당되는 것 같다.</p> <p>토론주제 2. 인간의 상상력은 사회를 이롭게 만들었는가? 김유빈: 사회를 이롭게 만들었다면 상상력을 통해 기술 발전과 더불어 국가 단위의 결속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가능하고 사회를 악화시켰다면 인간의 상상력으로 전쟁이 발생하는 등 부정적으로 평가 가능하다. 박석주: 초기 발전 단계에서는 상상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발전하지만 정체가 단계에서는 악영향을 끼친다고 본다. 이예원: 상상력 자체는 선과 악이 존재하지 않고 인간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렸다. 핵무기 등 전쟁에 악용될 수 있다. 조민채: 상상력은 사회를 이롭게 만든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에 비해 인식이 느린 것이다. 올바른 사회를 위해 법률을 지정하는 것 또한 상상력의 영역이라고 본다.</p>	

2주차	일시	11 월 3 일 16 : 30 장소명 탐구관528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조민채(2311250)	O
		김유빈(2411121)	O
		이예원(2411096)	O
		박석주(2531105)	O
	진도	도서명: 사피엔스	진도페이지: 119 p. ~ 232 p.
	토론 내용	<div data-bbox="525 607 1455 1131" data-label="Image"> </div> <p>[좌측부터 김유빈, 이예원, 박석주, 조민채, 박성재 교수님]</p> <p>토론 주제 1. 현대의 상상의 질서는 무엇이 있을까? 조민채: 대표적으로 금이나 보석같은 희귀함에 따라 가치를 매기는 것도 어쩌면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의 가치인 것 같다. 김유빈: 다이아 같은 것도 상상의 질서, 예전엔 난민 문제 등등에서 사회적으로 옳은 것을 추구했는데 요즘은 그 질서가 바뀌는 과정인 것 같다. 박석주: 돈, 지폐, 화폐. 돈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지 않으면 종이 조각리에 불과하기 때문. 이예원: 돈, 법, 국가, 지역적인 범위를 포함해서 모두 상상의 질서라고 생각한다.</p> <p>토론 주제 2. 농업혁명에서 더 많은 식량이 인구 증가(함정)을 낳았듯, 현대 사회의 '사치품의 덩어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예원: 스마트폰, 편리함도 있지만 중독도 되고 금단현상이 오고 불편해지는 감각 자체가 덩어리라고 생각한다. 김유빈: 생성형 AI,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고 과제에 도움을 주곤하지만 의존하게 되면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느낀다. 박석주: 취미생활, 취미를 시작하면 처음엔 저렴한 제품을 사용하지만 갈수록 더 좋은 걸 사고싶게 된다. 이런 게 사치품의 덩어리 같다. 조민채: 문자나 카톡, 빠른 연락이 되는 게 좋긴 하지만 오히려 아날로그 시대보다 답을 기다리는 인내심이 줄어든 것 같다.</p>	

3주차	일시	11 월 17 일 16 : 30 장소명 탐구관528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조민채(2311250)	O
		김유빈(2411121)	O
		이예원(2411096)	O
		박석주(2531105)	O
	진도	도서명: 사피엔스	진도페이지: 233 p. ~ 350 p.
	토론 내용		
		<p>[좌측부터 김유빈, 이예원, 조민채, 박석주, 박성재 교수님]</p> <p>토론 주제 1. 보편적 질서인 돈, 제국,종교 외에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을 대규모로 협력하게 하는 가상적 존재는 무엇이 있을까? 이예원: 현대사회의 가장 큰 통합적 존재는 법, 또는 웹, sns공간도 있다. 김유빈: 법, 또는 ㅇㅇ주의같은 사상, 민주주의, 올해의 색 같은 '유행'하는 것들 박석주: 법, 게임(협력) 조민채: 게임에서 좀 더 큰 개념인 스포츠, 당위를 가진 사회적 가치</p> <p>토론 주제 2 종교는 인류를 통합한 긍정적인 힘일까, 갈등을 증폭시킨 부정적인 힘일까? 박석주: 종교 자체는 긍정적. 그러나 사상이 다르면 배제하는 등 인간의 과시 본성, 핍박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 이예원: 종교가 있어서 사람들이 통합되는 건 긍정적이지만 종교 등으로 전쟁이 발생하는 것 등은 부정적이다. 조민채: 종교는 긍정적이지만 그걸 믿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김유빈: 기본적으로 극단주의가 안 좋은 것이다. 일신론은 부정적인 부분이 더 크고 다신론은 반반인 것 같다. 장단점이 있어 보인다.</p>	

4주차	일시	11 월 24 일 16 : 30 장소명 탐구관528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조민채(2311250)	O
		김유빈(2411121)	O
		이예원(2411096)	O
		박석주(2531105)	O
	진도	도서명: 사피엔스	진도페이지: 351 p. ~ 648 p.
	토론 내용		
		<p>[좌측부터 김유빈, 이예원, 박석주, 조민채, 박성재 교수님]</p> <p>토론 주제 1. 무지의 인정이 과학을 발달 시켰다면, 현재 또한 무지의 인정으로 과학이 발달되고 있는 것인가?</p> <p>박석주 : 발달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우리가 바다를 3%만 알고 있다는 말처럼 과학은 여전히 무지를 밝혀내고 싶다는 욕망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본다.</p> <p>조민채 : 무지의 인정 이후 과학 발달을 인정한다. 그러나 현재는 과학이 인간의 인식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p> <p>이예원 : 무지에 대한 탐구심 뿐 아니라 자본주의적으로 돈이 될만한 쪽으로 발달하고 있다고 본다.</p> <p>김유빈 : 과학은 발달하고 있지만 어떤 것을 100%로 안다는 것은 계속해서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과학자들 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무지의 인정이 필요하다.</p> <p>토론 주제 2. 유발 하라리가 지적하는 자본주의의 어둠에 대해 토론해보자.</p> <p>조민채: 부익부 빈익빈, 그러한 사회 구조가 가장 큰 어둠인 것 같다.</p> <p>김유빈: 산업의 간접 피해자들. 제조업에 있던 분의 자식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건, 런던 베이글의 과로 사망사건, 911테러를 주도 했던 빈 라덴 사건 등이 자본주의의 어둠을 잘 보여준다고 본다.</p> <p>이예원: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돈이 없으면 과한 처벌을 받는 것들이 있다.</p> <p>박석주: 당장 우리 주변에 생기는 범죄들. 돈 때문에 벌어지는 살인사건 등이 있다.</p>	

활동 후기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1	조민채 (2311250)	항상 "사피엔스"를 언젠가는 한 번 읽어봐야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독서클럽에 들어가면 책도 읽고 여러 사람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으니 좋은 기회라고 느껴 신청하게 됐다. 이 책을 읽으며 내가 인지하고 있던 당연하던 개념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인지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됐다. 팀원들과 책 내용 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 이슈나 또 다른 가치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토론할 수 있어서 매우 좋은 기회였다고 느꼈다. 혼자 읽었다면 단순히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이해에서 그쳤을 것 같은데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내용을 체화하는 과정을 겪었다. 여러 이슈들과 결합하여 대화를 나눌 때 진지하게 들어주던 팀원들이 고마웠다.
	2	김유빈 (2411121)	많은 미디어에서 접한 사피엔스 책을 한 번 진득하게 읽고 싶었는데 마침 독서클럽에서 모집 중이어서 반가운 마음으로 신청했었다. 책 속의 내용은 내가 잘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나의 상식을 파괴하여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내용도 있었다. 후자의 경우를 가장 재밌고 흥미롭게 보았다. 이번에 만난 조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정말 열정적으로 토론에 참여해주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기뻐다. 혼자 읽는 것보다 여러 명의 감상평과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더욱 이 책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사피엔스 독서클럽을 담당해 주신 박성재 교수님께서 독서클럽을 진행할 공간을 빌려주시고, 토론 과정에서 한 번씩 분위기를 환기시키거나 생각을 정리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3	이예원 (2411096)	고등학교 시절 학교도서관 권장도서 목록에 사피엔스가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 밖에도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며 주변인들이 추천했던 책이었고, 대학에 들어와서는 많은 교수님들이 수업마다 한 번 씩은 꼭 언급하는 책이기도 했다. 그 정도로 찬양을 받는 책이다 보니, 역사나 인문학 도서에 관심 없었던 나도 시간이 지날수록 흥미가 생겼다. 마침 학술정보관에서 하는 독서클럽에 사피엔스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완독해보고자 지원하게 되었다. 책을 읽으며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부분은 인지 혁명이었다. 인류가 다른 종을 압도하게 된 힘이 바로 허구를 상상하고 수십만 명이 함께 믿는 능력에서 비롯되었다는 해석 때문이었다. 국가, 법률, 화폐 등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모든 질서가 집단적으로 합의된 이야기라는 깨달음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뒤집어 놓았다. 결국 사피엔스는 인류가 이제 신적인 능력인 '호모 데우스'로 변모하는 문턱에 서 있음을 보여주며 마무리된다. 단순한 인간의 역사를 넘어, 무한한 힘을 얻게 될 인류가 과연 '무엇을 원해야 하는가?'라는 책의 마지막 질문이 나에게 큰 여운을 남겼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달라질 인류의 미래에서 나는 과연 어떤 가치관과 기준을 갖고 살아야할지 생각이 깊어지는 독서였던 것 같다.
	4	박석주 (2531105)	한 번 쯤은 사피엔스 책 한 권을 전부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독서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중이어서 신청하였다. 처음에는 대략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언제 다 읽지라고 생각하였지만, 시간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고, 어느새 마지막 챕터를 읽는 날이 왔고 사피엔스를 완독할 수 있었다. 이 책은 책의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세상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신기한 힘을 가진 책인 것 같다. 단순히 인류의 역사를 연대기 순으로 나열한 역사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이 걸어온 길을 생물학, 경제학, 종교, 심리학을 넘나들며 통섭적으로 파헤친 거대한 철학서에 가까웠다. 그 중에서 책을 읽으며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우리가 진리 혹은 실체라고 믿어왔던 국가, 종교, 인권, 화폐, 법인 같은 개념들이 사실은 사피엔스만이 공유하는 상상의 질서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심오한 내용이 많은 책이어서 혼자 읽었다면 내용 이해가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조원들과 담당교수님인 박성재 교수님과 함께 책에 대한 토론 주제를 정하고 토론을 하니, 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책에 대한 이해가 혼자 읽을 때보다 더욱 잘 됐던 것 같다. 하루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열정적으로 토론에 참여해준 팀원들이 고마웠고 가끔 토론에 대한 우리의 의견에 질문을 해주고 교훈을 남겨주신 박성재 교수님 또한 너무 감사했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너무 뿌듯하며 즐거웠다.